

OK

JOURNAL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국제심포지엄

OCTOBER 2017 www.okj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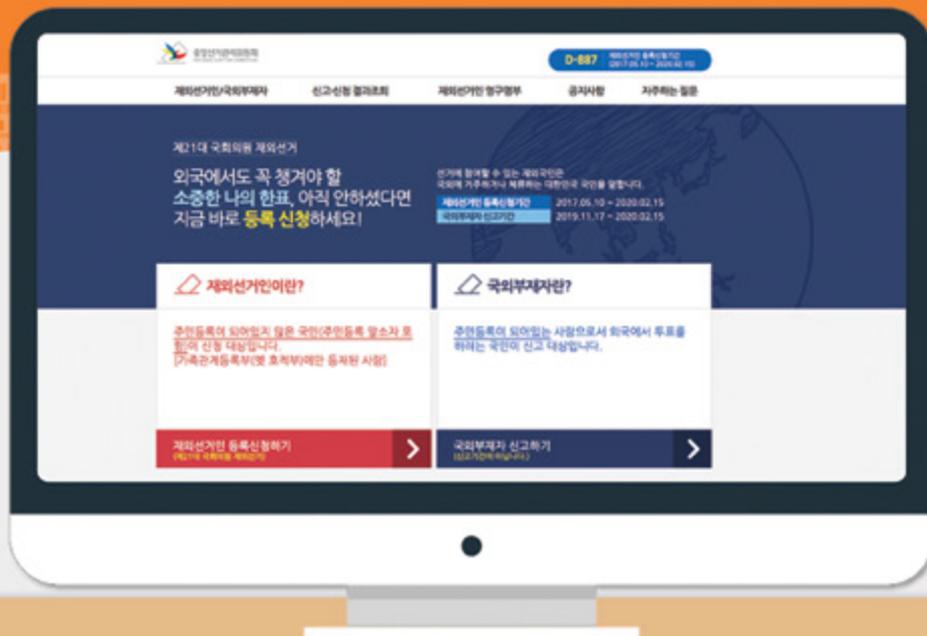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ova.nec.go.kr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신청부터!



- 재외선거인 등록방법**
-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 ▶ 공관방문/순회접수
 - ▶ 우편이용/전자우편(e-mail) 이용

*여권사본 등 미제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영주권자)

영구명부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던 사람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는 제도

적용대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외대상 : 명부등재 이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대상
명부등재 이후 두 번 연이어 투표하지 않은 사람 → 재등록 신청 필요



발행처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펴낸곳 공동취재단
펴낸이 이석수
편집장 최윤주
공동취재단 취재팀 최윤주 / 신성철 / 이경옥 / 박창진
김대중 / 송태진 / 김대순 / 박상준
사진팀 이석수 / 오영교
영상팀 김종민 / 안미향

주 소 100-101 서울 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 건설회관 700호
전 화 02-722-5599 / 070-8846-9646
이메일 francezone@gmail.com (이석수)
okjakorea@naver.com (사무처)

뉴스

- 04 2017 국제 심포지엄 본격 개막
- 07 세언협-예술산업진흥회, 문화예술 업무 협약
- 08 "해외한인언론 역할, 점차 증대"
- 09 청년 해외 진출사업, 효율방안 논의

강연

- 10 오준 전 유엔대사 "대북제재와 압박, 단호하게"
- 11 김동엽 경남대 교수 "북한 핵개발, 완성단계"
- 12 유재응 을지대 교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재외언론"

통일정책

- 13 조명균 통일부장관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다"



화보

- 16 가을 운동회 '행복한 가을날의 추억만들기'
- 20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 24 세언협 미래 엮본 '기자 실무교육'
- 26 고양시,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해법찾아 나서다!
- 28 재외동포들이 바라본 한반도 정세는?
- 30 "세언협 공동취재단, 그들의 눈빛은 타올랐다"

개막식 '한반도 정세와 재외동포' '한글·한류·한인언론' 주제로 밀도높은 논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7 국제심포지엄 개막



재외동포 한인언론단체를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10월 16일(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외동포 한인언론단체를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가 10월 16일(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재외동포 언론의 양대산맥인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이룬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반도 정세와 재외동포사회', '한글·한류·한인언론'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또한 '지구촌 골목뉴스 제작과 공급 네트워크의 중요성' '1인 미디어 실재와 실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한

밀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세계 41개 도시에서 50여명 참가

16일(월) 인사동에 위치한 이비스 호텔 테이스트홀에서 열린 개막식은 통합을 이룩한 재외 한인 언론인들이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는 28개국 41개 도시에서 50여명의 한인언론인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통해 2017 국제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린 전용창 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글로 고국의 소식과 한인사회의 정보를 전하는 재외동포언론 매체의 역할에 대한 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전용창 공동회장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김소영 공동회장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

명감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통합 후 첫 대회인 2017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소속 회원들의 위상이 바로 서고 협회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소영 공동회장은 “외교압박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재외 한인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확대할 길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한편, 모국과 거주국 한인사회의 가교역할을 통해 전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공동주관사인 대한언론인회를 비롯해 재외동포재단, 사단법인 평화, 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센터, 예술산업진흥회, 한국국악협회 등 11개 단체에서 24명의 귀빈이 참석해 2017 세계

한인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의 개막을 축하했다.

최대 한인언론조직의 역할 기대

화합보다는 분열이, 단합보다는 갈등이 팽배한 현 시대에 ‘통합’을 통해 귀감을 보인 세언협에 찬사를 아끼지 않은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이사장 직무대행은 “세계 한인 언론인들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때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이 발현되는지 보여달라”며 ‘통합’을 통해 최대 해외 언론조직의 면모를 확고히 한 세언협의 활동과 역할에 기대감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역임하며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입안 및 권익증진에 앞장서 온 (사)평화 김성곤 이사장은 “재외 한인 언론은 한민족 최대의 인적자산인 730만 해외동포라는



아시아 기자협회 이상기 회장

“
2017 국제심포지엄은
‘한반도 정세와 재외동포사회’,
‘한글·한류·한인언론’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16일(월) 인사동에 위치한 이비스 호텔 테이스트홀에서 열린 개막식은 통합을 이룩한 재외 한인 언론인들이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존재”라고 비유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현 시국의 중대현안인 ‘한반도 정세’를 대주제로 삼은 만큼 해외 한인 언론인으로서 보다 넓은 시각과 중립적인 접근법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언론발전의 산증인인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과 2002년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재외동포기자 초청대회를 처음으로 개최, 재외동포 언론단체 생성의 기틀을 마련한 이상기 아시아기자협회 회장의 참석은 2017 국제심포지엄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아시아기자협회 회장 및 세언협 편집고문 이상기 회장은 “지난 4월 통합대회에서 불굴의 실력을 발휘한 ‘공동취재단’의 활동을 세언협의 모델로 삼길 바란다”며 “대립과 갈등으로 깊이 패였던 골을 화합으로 채워나가는 세언협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관한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회장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북한 핵,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북핵 해결을 위한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고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재외한인미디어연합 박명규 회장, 재외동포포럼 조룡제 이

사장, 세계 한인 네트워크 김송희 회장, 한국국약협회 홍성덕 이사장, 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센터 현경숙 본부장, 예술산업진흥회 최종원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은 대한언론인회, 홍익표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외교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동포재단·연합뉴스·아시아기자협회·재외한인미디어연합 등이 후원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9년 봄대회 이후 분열돼 각각 별개의 대회를 치러왔던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와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가 9년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난 4월 하나의 단체로 재탄생한 명실상부 한인언론 최대의 연합체다.

통합 후 첫 대회로 치러지는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은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서울과 고양시 등 수도권 일원에서 펼쳐진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이사장 직무대행



사단법인 평화 김성근 이사장

세언협-예술산업진흥회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

업무협약 언론과 예술의 협업통해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도모

750만 재외동포를 대변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가 (사)예술산업진흥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언협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 세계 한인사회에 우수한 한국문화공연을 소개해, 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와 한인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28개국 41개 도시에서 온 50여명의 전 세계 한인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이비스 호텔 올리브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예술산업진흥회 최종원 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이사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향후 양 단체는 문화·예술 공연기획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해외유력 문화단체의 한국공연 기획, 해외 한인사회의 문화예술 공익사업 등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 활성화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날 세언협과 예술산업진흥회는 서로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을 합의했다.

향후 양 단체는 문화·예술 공연기획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해외유력 문화단체의 한국공연 기획, 해외 한인사회의 문화예술 공익사업 등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 활성화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예술산업진흥회 최종원 이사장은 “해외공연을 다니면서 동포사회 문화환경의 열악함을 수없이 경험했다. 앞으로 세언협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적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술산업진흥회는 예술문화 및 지역축제 활성화, 소외지역 문화 활성화, 예술단체간 협력교류 등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됐다.

세언협은 예술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 세계 한인사회에 우수한 한국문화공연을 소개,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와 한인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언협 전용창 공동회장은 “해외 한인 언론인과 한국 최고의 예술인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생성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해외 한인 동포들을 위한 예술산업진흥회와의 전략적 제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해외한인사회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한 세언협 김소영 공동회장은 “한국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데 언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예술산업진흥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문화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전했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750만 재외동포를 대변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사)예술산업진흥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

"해외 한인언론 역할, 점차 증대"

심포지엄 축사

홍익표 "재외 한인, 또다른 외교관"
김석기 "동포들의 재외활동 지원"

2017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주관한 세계한인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행사가 17일(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막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제위원장은 "한반도 잠재적 안보의 위협을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해외 언론인들이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의 현실, 재외동포사회의 시각에 대해 심포지엄을 갖는 것이 대단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현지의 해외 언론 보도 기관이 동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개개인이 또 다른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또한 축하인사를 더했다.

특히 2012년 재외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재외 선거가 실시된 이후 해외 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내와 국외를 아울러 더욱 영역이 확장되고 다양해진 것에 대해 해외의 언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덧붙여 "동포들의 재외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세계 언론인들도 함께 노력해 동포들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동포들의 통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박상준 기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잡노마드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의 교류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사업, 효율방안 논의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사업 소개 ... 한인 언론인, 현지 정보 취약성 등 지적



K-Move 사업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부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계 한인 언론인들은 K-Move 사업이 세계 현지에서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지 정보 획득의 취약성 등을 지적하며 해외진출 공공기관의 면밀한 사업진행과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요구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잡노마드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의 교류에 나섰다.

잡노마드란 직업(Job)과 유목민(Nomad)을 합한 신조어로, 해외로 진출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빚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진혁 팀장은 지난 17일(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둘째날 프로그램에서 한국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K-Move 사업은 해외에서의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된 정부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인 언론인들은 K-Move 사업이 세계 현지에서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지 정보 획득의 취약성 등을 지적하며 해외진출 공공기관의 면밀한 사업진행과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요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진혁 팀장은 추후 해외취업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현지 한인회 및 한인언론과 연계해 보다 심도있는 해외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특강 |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오준 전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아홉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력은 어렵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아홉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력은 어렵다.”

오준 전 주UN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750만 재외동포를 대변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17일(화)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연 초청 특별 강연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인 오준 전 대사는 이날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라는 주

제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오 전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1945년 남북한의 독립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외교 경쟁, 남북한 유엔 가입, 핵 문제의 경과와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실험을 거듭할수록 유엔 안보리는 매년 그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결의를 채택했다”며 “북한 핵문제는 현재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면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면 비핵화 대화 재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경우에는 미 행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북한의)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남북한 간 민족적 신뢰 회복과 동질성의 회복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 등을 꼽았다.

오준 전 대사는 2014년 UN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정식의제로 최초로 채택할 당시 북한 인권에 대한 연설로 화제를 모았다.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공동취재단] 신성철 기자

특강 | 북 핵 미사일 위협, 평가와 해법**"북한 핵개발, 거의 완성단계"**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2017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국제심포지엄 둘째날인 17일(화) 초청 강연자로 참석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핵미사일 위협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동엽 교수는 NLL(북방한계선)에 얽힌 숨겨진 뒷이야기, 북한의 핵 개발 과정과 최근 국내의 정세 흐름, 북핵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북한 주민과 정권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까지는 핵분열 실험이었지만 2017년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핵분열을 통한 핵융합 실험으로 이 실험을 통해 북한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3,700km를 날아 태평양에 떨어진 화성 12형 미사일, 2017년 7월 28일 고도 3,724.9km, 비행거리 998km였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폭탄 운반 수단도 실질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핵 문제가 중국의 대외확장 정책인 일대일로 정책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정책과 맞물려 복잡한 국제 정세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 북한 담당이 아태차관보인데 트럼프 정부는 아태차관보 임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갈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 국내 보수층의 눈치까지 보아야 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흔들리지 말고 정교한 로

드맵을 통한 실질적인 주도권 확보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3단계 안을 제시했다.

김교수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평화체제 추진을 통해 북핵개발 중단과 미래 핵 제거, 2단계는 남북이 주도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미국간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북핵 시설 제거를 통한 현재 핵 제거, 3단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체제를 완성하여 북핵 폐기를 통한 과거핵 제거다.

[공동취재단] 박창진 기자



북한에게 핵은
북한 주민과 정권의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강 | 국가 이미지 제고와 재외한인언론

"국가이미지 제고 위해 재외언론 앞장서야"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 교수



모국과 재외동포들의
매개체인
재외 한인언론인들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과 교수는 17일 (화) 강연에서 '국가이미지 제고와 재외한인언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유재웅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뗀 후 "머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각광 받고, '이미지'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

가도 이미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며 "특히, 모국과 재외동포들의 매개체인 재외 한인언론인들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유 교수는 또 "재외 동포사회에서 한인언론의 역할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모국과 재외동포 간 네트워크 형성, 교민-공관-기업 간 매개체 기능 수행 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관의 한계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재외동포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재외 한인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자신이 현지 동포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소영 세언협 공동회장은 "재외 언론인으로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고민했는데 해답을 찾은 것 같다"고 밝히며 "앞으로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또한 김 회장은 "세언협의 발전과 소속 회원들의 위상이 바로서고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며 "회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은 "세계 언론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활동할 것이 아니라 협회 차원의 프로젝트 기획, 공동사업 연구 등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유 교수의 진심어린 충고로 마무리됐다.



[공동취재단] 이경옥 기자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풀어 낼 해법으로 제시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 시장의 통합, 즉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 정책강연 |

조명균 통일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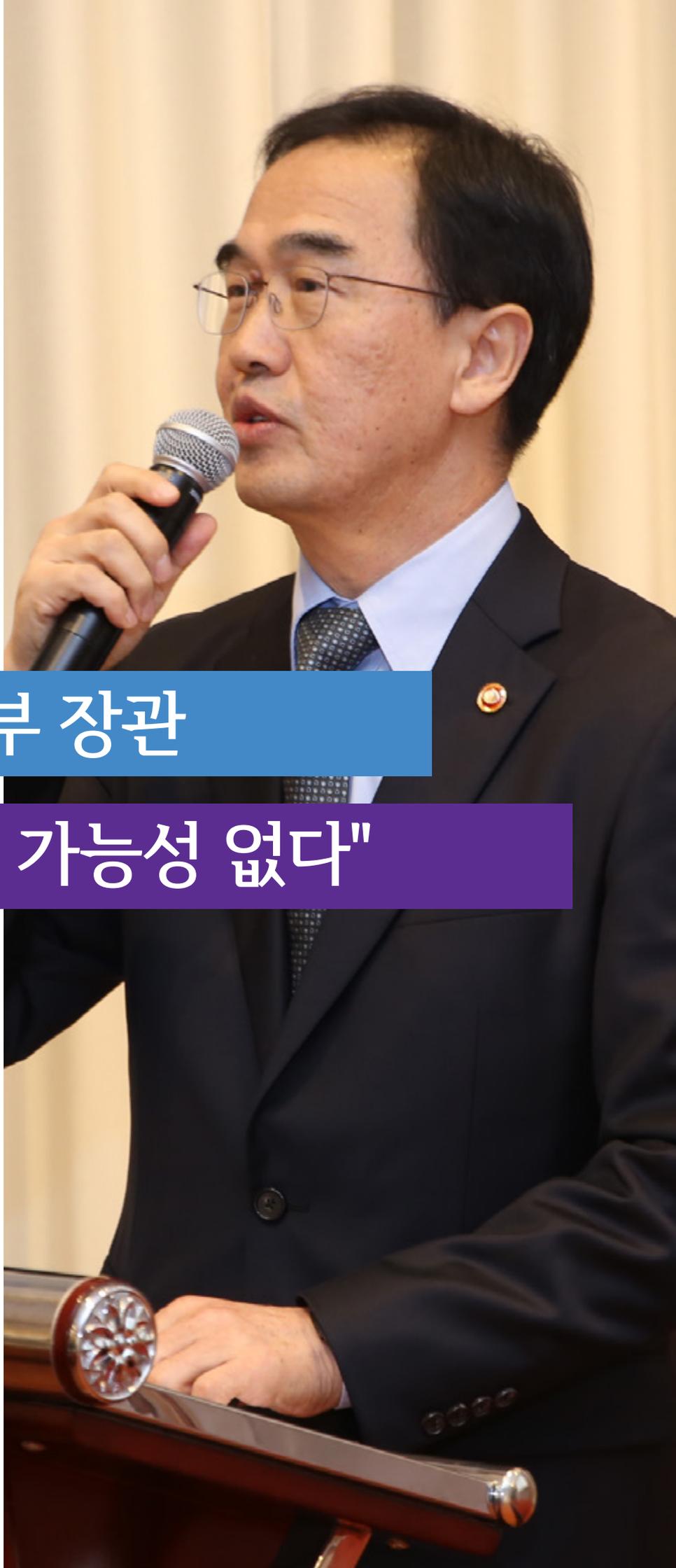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 정부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급함을 배제한 채, 긴 호흡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국제심포지엄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지연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등 정부인사 10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수행에 세계한인언론인들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도발로 한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 시장의 통합, 즉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에서 조명균 장관은 "한반도를 동해권과 서해권, 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경제로 연계 시킴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남북한 경제시장을 통합, 사실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3대 벨트 구상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러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개성공단 정상화 및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서해권 산업·물류 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의 관광벨트와 생태 관광지구 개발을 핵심으로 한 'DMZ 환경·관광 벨트' 등이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포함돼 있다.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

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북한에게 핵은 생존수단

물론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필수요인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상황은 최악에 다름없다.

조 장관은 "지난 9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현재 남과 북은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라며 "남북한 핫라인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산될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수단으로 연결짓고 있어 어떠한 제재 조치와 압박에도 핵을 포기할

17일(화)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강연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의 새로운 로드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시했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 구축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특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져 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명균 장관은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해외 한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 한인 동포 언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일문일답]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묻는다!

◎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보다는 군수산업의 이익 등 자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공고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진 않는지.

= 북한과 관련한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문제다. 이 중 핵문제는 미국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미국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열쇠가 있다.

때문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반면 남북경제교류, 개성공단, 이산가족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난 9년간 남북관계가 핵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한반도 문제가 잊혀지고 사라졌다. 단절을 극복하고 대화를 열어어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어 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갈 부분이 있는가.

= 충분히 검토해 계승할 부분이 있다면 이어나갈 뜻이 있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또다시 과거 정권의 것이라고 이유없이 무조건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

= 지난 봄부터 개성공단 내에 전기사용이 지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개성공단의 전력은 남쪽에서 공급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모든 소유권은 남한 기업에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막거나 조치를 취할 방안은 없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남북문제 뿐 아니라 북한 경제활동에도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에 전하고 있다.

◎ 세계한인언론인들은 지난 2010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3일씩 체류하는 일정으로 세계한인언론인과 북한 언론인간의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북한정부의 허락까지 받아냈으나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경우 세계한인언론인과 북한 언론인간의 공동대회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 매우 환영하며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 냉각된 한반도 정세와 중단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한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세언협 화합의 가을 운동회

행복한 가을날의 추억만들기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대회 셋째날인 10월18일(수)에는 고양시 대화 인조잔디구장에서 「세언협 추억의 가을 명랑 운동회」가 열려 세계한인언론인들이 한마음으로 결속하는 화합과 친목의 한마당이 마련됐다.

세언협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가을운동회는 매년 '언론인대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 쫓겨 정작 회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부족한 것을 감안, 회원간의 소통을 이어주고, 함께 정을 나누고 화합하며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미향 회원의 재치넘치는 사회로 진행된 운동회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신발 멀리던지기, 배치기와 엉덩이치기, 훌라후프 통과하기,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풍선 많이불기, 피구, 족구 등 다양한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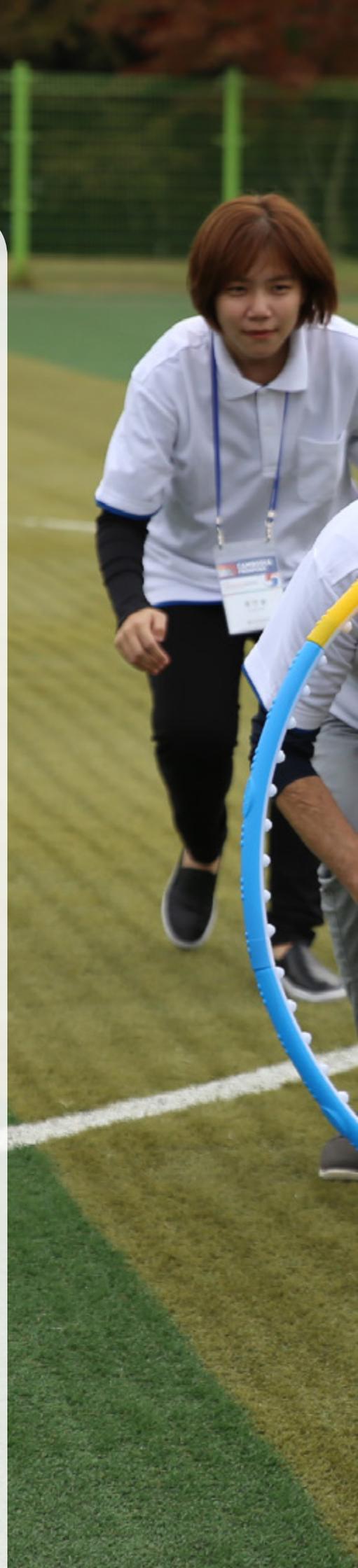
2시간 30분 여에 걸쳐 진행된 가을운동회는 최종 합산 결과 4:4무승부로 청팀 홍팀이 공동우승을 차지, 우승 상금을 사이좋게 나눠가졌다.

이날의 인기상에는 이신우 회원(청) 전승언 회원(홍) MVP는 정인술 회원(청)과 김여순 회원(홍)이 차지했고, 열정상은 신성철 회원(청) 공로상은 안치복 회원에게 돌아갔다.

가을운동회 행사는 운동장 한가운데 동그랗게 하늘을 보고 누워, 드론 영상 촬영을 통해 온 회원이 한마음이 되는 행복한 장면을 연출하며 아쉬운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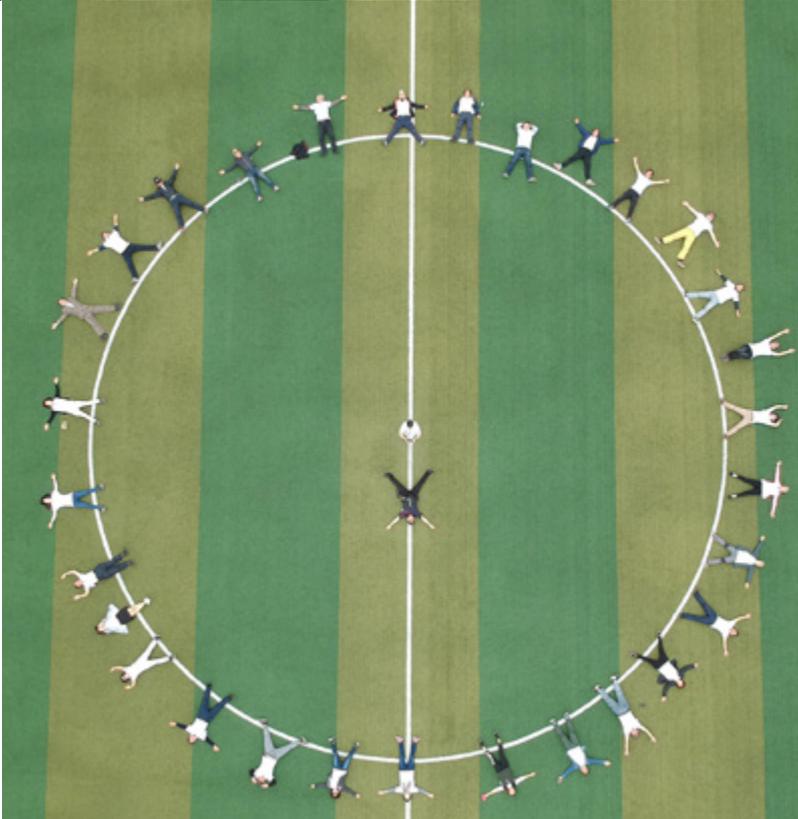
김소영 공동회장은 "안미향 회원의 탁월한 진행으로 회원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한 시간이었다"며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함께 땀흘리며 서로를 의지하면서 화합과 단합이 싹트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전용창 공동회장은 "오늘의 가을 운동회는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흥미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를 통하여 세언협 회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세언협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양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음악회

음악으로 이어진 하나된 마음

좋은 음악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공감 능력이 있다. 10월 18일(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로 고양 원마운트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된 '고양 시민과 함께 하는 세계한인언론인 가을 음악회'는 음악의 힘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세언협 회원들과 고양 시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음악회에 올려져진 아름다운 선율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세언협 회원들을 하나로 모아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세언협 전문 사회자인 김길수 회원(미국 DK Net 라디오)과 김송희 회원(파리지성)의 진행으로 음악회가 시작됐다.

오프닝 공연은 4인조 그룹 'E&I 앙상블'이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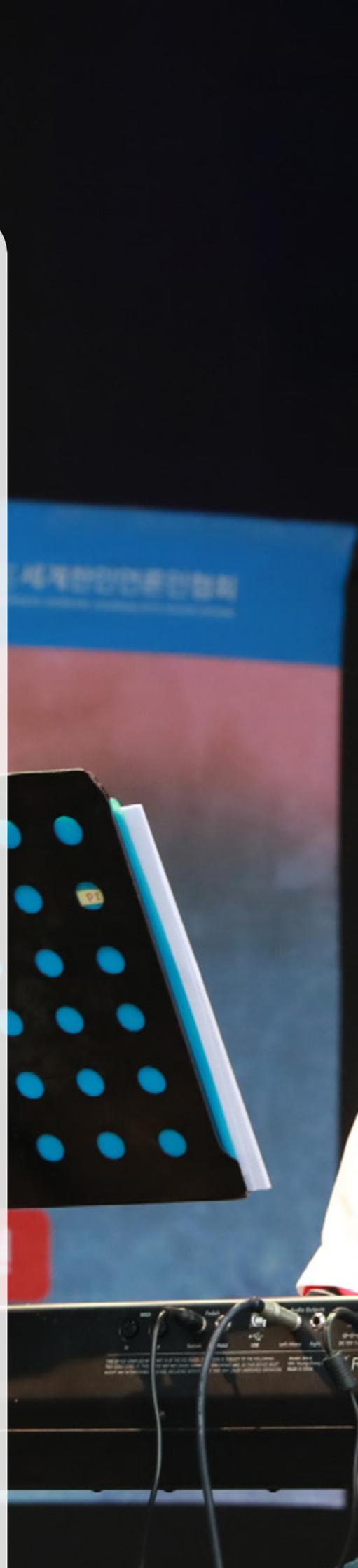
E&I 앙상블은 영화 OST와 팝송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새로운 감각으로 연주해 선보였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및 쟬베 등 다양한 악기의 음색이 어우러져 독특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김광석 음악 메들리는 기립 박수와 앙코르를 이끌어낸 훌륭한 무대로 재외한인언론인들의 기억에 새겨졌다.

이어진 성악 공연에는 테너 김영성과 소프라노 김희선의 솔로와 듀엣이 펼쳐졌다. '언론인'이라는 바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처럼 일을 내려놓고 맑은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쉴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호주 한국신문의 김인구 회원은 '음악가들이 직접 귀에 익은 곡들을 열창해주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공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음악회에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됐다. 조익현 부천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와 함께하는 합창교실이 그것. 세언협 회원들은 준비된 악보를 보며 '아 가을인가', '노을', '사랑으로' 등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가을 노래들을 합창했다.







행사를 준비한 주최자 조익현은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한 세계한인언론인들이 한국적 정서와 따뜻한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음악을 선곡했으며, 각국의 한인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한인 언론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무대는 EDM 힙합 그룹 '행오버'가 장식했다. 전자음악의 강렬한 리듬에 맞춰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음악회 내내 밝은 웃음을 띄고 행사에 집중하는 회원들의 모습은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세계한인언론인 심포지엄이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다.

이 날 음악회에 함께한 고양 시민들은 동포 사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재외 한인 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한인언론인 가을 음악회'는 한국을 방문한 한인 언론인들에게 음악을 통한 화합과 위로를 선물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세연협 미래 엿본 「기자 실무 교육」

모바일 시대 대비, 재외한인언론사 경쟁력 강화



‘글로벌 한인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동선 사무총장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모바일 중심으로 통합 재편되는 언론매체 시장에서 재외한인언론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10월 19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연협) 국제 심포지엄 넷째 날 오전에는 기자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고양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 모인 세연협 회원들은 김동선 재외미디어연합 사무총장과 국내 1호 소셜PD 이군상 채널010 대표의 특강에 집중했다.

첫 시간 ‘글로벌 한인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동선 사무총장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모바일 중심으로 통합 재편되는 언론매체 시장에서 재외한인언론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 종이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적 매체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광고에 의존하는 기존 수익모델만으로는 재외언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앞으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미디어 시장의 중심이 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재외한인언론사들의 글로벌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동선 사무총장은 "모바일 기반의 재외한인언론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194개국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 융합기구로 부상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 산재한 3200여개의 한인단체들을 연결해 국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4차 산업 사회에 찾아올 5G기반 뉴미디어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이 재외한인언론사들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모바일





시대가 재외언론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시간, 강사로 초청된 이군상 채널010 대표는 '1인 미디어의 실제와 실무'에 관한 특강을 펼쳤다.

이군상 대표는 소통과 관계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미디어 시장에서 1인 미디어는 기존의 방송이 공영성을 문제로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앞으로는 언론사에서는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소셜 방송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인 미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질이 아닌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공간을 융합 시키거나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융합시키는 시도를 통해 관계성을 키우고 미디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했다.

또한 통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지구상의 누구와도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라며, 재외한인언론인들이 소셜 방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구촌 한인 동포사회

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강연 중에 이군상 대표는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소셜 방송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작은 여행 가방 한 개 분량의 간단한 장비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 대표의 모습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세언협 회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동선 사무총장과 이군상 대표의 특강은 재외한인언론인들이 모바일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두 강연의 주제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는 급변하는 미래 언론 시장의 관세를 예측하고 변화해야 재외한인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과 5G 초고속 모바일 생태계는 재외한인언론인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세언협 심포지엄은 그러한 갈림길 앞에 선 재외한인언론사들에 더 넓은 시야와 공감대를 형성해 준 것으로 평가 받았다.

[공동취재단] 송태진 기자



재외한인언론인들이 소셜 방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구촌 한인 동포 사회 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고양시,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해법찾아 나서다!

한반도 평화, 강력한 방어선은 '한미연합'

최성 시장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토마스 번 '한미관계의 강점과 도전, 북한 리스크'

경기 고양시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소속 재외 한인 언론인들이 함께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섰다.

경기도 고양시가 주최한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초청 특별 강연'이 19일(목)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한미관계의 강점과 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기도 고양시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소속 재외 한인 언론인들이 함께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섰다.

경기도 고양시가 주최한 '토마스 번(Thomas J.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초청 특별 강연'이 19일(목)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한미관계의 강점과 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언협 회원을 비롯해 통일전문가, 국내 언론인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성 고양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 안보 등 여러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재외 한인언론인"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북한의 핵 문제, 사드문제 등을 해결하고 하루 빨리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차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물론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마스 번, 한미관계 개선 방안 제시

고양시가 특별 초청한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한미관계의 강점과 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토마스 번 회장은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교류강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번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개인간 교류도 양국관계





를 번영시키는데 필수적"이라며 국가에 이어 개인간 교류를 강조했다.

이어 번 회장은 한미 FTA문제에 대해서는 "FTA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FTA를 수정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윈-윈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번 회장은 또 "한반도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경로는 억제, 단념, 제재, 변환정책으로 보인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64년간 북한의 적대행위를 예방한 한-미동맹의 저력, 20여 개국 이상의 북한과 외교 및 경제관계 단절을 낳은 강한 압박과 제재,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확산 방지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을 마치며 "한국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미국과의 연합과 상호 방어조약을 통해 제공되는 체지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

다.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더욱 협력한다면 앞으로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 고양시가 앞장설 것

이어진 질의문답 시간에는 재외 한인언론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이 시점에 재외 한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김대순 라이프 매거진 발행인(중국 심천)의 질문에 최성 시장과 번 회장은 "한반도 현 정세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창 세언협 공동회장은 "제2회 고양 글로벌 언론인 포럼은 지난 봄에 열린 첫 번째 포럼에 비해 한층 더 훌륭한 포럼이 될 것"이라며 "재외 한인언론인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모국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통일 전문가 최성

시장은 강연에서 "최근 통제불능한 김정은의 대외정책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인 강경 대북 정책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한반도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피력하고 "한반도에서 하나의 변수만 잘못 작동되도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충돌, 위기로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을 마치고 세언협과의 인터뷰를 가진 최성 고양시장은 "750만 동포들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고양시가 앞장서서 통일한국의 실리컨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장, 정치인, 시민 등이 함께 모여 북한의 핵·사드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꾀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 평화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반도 평화 유지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9일(목)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대한민국 현실과 재외동포 사회의 시각'이란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재외동포들이 바라본 한반도 정세는?

토의 | 한국 정세와 재외동포 사회의 시각 고양시 후원 '한반도 현안 패널 토의'

19일(목)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대한민국 현실과 재외동포 사회의 시각'이란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호주 한국신문 김인구 편집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의는 경향신문 김진호 선임기자의 '한반도 현안,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기조발표 후 '각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정세 및 대북, 대미관계'에 관한 한인 언론인들의 발표가 잇따랐다.

재외동포 역할과 정책은 '같은 배'

미국 달라스 i뉴스넷의 최윤주 대표는 "해외 한인들에게 땀복적인 애국심만

을 강조해 '한민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민으로서 거주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재외동포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정책 변화없이 공공외교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 역할은 모원하다"고 지적한 최 대표는 "재외동포사회의 역할과 사명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과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 완화, 인도네시아에 주목

데일리 인도네시아를 발행하고 있는

신성철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과 직접 협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아세안과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 등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갈등 요인이 없는 만큼, 큰 부담 없이 열린 자세로 한반도 문제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표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우방인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도 40년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남북한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활용한 대화채널 구축이 한반도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순방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자·다자간 외교를 펼치는 것에 긍정적임을 표명했다.

북한 핵문제의 피해자는 한국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광희 편집인(USK News)은 북한 관련 한미정책의 허와 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언론에 노출된 트럼프와 김정은의 과격한 표현들이 한반도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무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4대국에 소외되고 있는 모습에 동포들의 답답함 커져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 정세에 안정감을 느낄수 없는 동포들은 고국의 투자에서 발을 돌려 현지지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세언협 회원사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우리다. 희망을 갖고 북한과 관계를 열어야 한다", "세언협 회원사가 앞장서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을 벌



이날 토의에서는 경향신문 김진호 선임기자가 '한반도 현안,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해외에서 바라본 한반도 긴장 고조... "재외동포 역할 중요"
북한 핵무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

이자", "해당 국가와 한국의 유대관계를 위한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많은 외국인들이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게 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의는 재외동포들의 한반도 정세를 보는 시각에 대해 각국의 상황들을 실감있게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모색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

[공동취재단] 김대순 기자





"세언협 공동취재단, 그들의 눈빛은 타올랐다."

단장_이석수 | 김종민·최윤주·이경옥·안미향·신성철·김대순·박창진·송태진·오영교·박상진

지난 4월,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통합 후 첫 대회인 2017 국제심포지엄을 알차고 풍성하게 치뤘다.

이번에도 공동취재단은 대회 한달전부터 3기 모임을 발족하고, 이 역사의 현장을 담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개막 하루 전인 15일에 주요 멤버들이 모여 편집회의를 한 후 참가자를 중심으로 총 11인의 풀기자단을 구성, 16일 개막식부터 20일 마지막 일정까지 주요공식 일정을 시시각각 기록하고 취재해 보도했다. 프랑스·미국·태국·케냐·홍콩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의 동포언론사 출신으로 구성된 공취단 11명은 취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별 전담기자를 선정, 그 날의 기사는 그 날 올린다는 원칙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공취단 이석수 단장은 "세언협은 전 세계 한인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2회씩 모여 대규모 행사를 치루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협회의 계획과 비전을 알리는 데도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공취단은 세언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협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 대회 때마다 재구성되는 공취단은 행사의 모든 일정과 주요 내용들을 매일 기사와 사진, 영상으로 제작해 협회와 회원사의 자체적인 보도는 물론 국내외 언론사에도 배포해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활동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740만 재외동포의 전문포털 사이트

코리아넷



한상넷

한민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기회제공



스터디코리아

재외동포 한글/문화/역사 교육을 위한 사이트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재외동포 관련 자료의 모든것

KOREAN NET

코리아넷

<http://www.korean.net>





100만 행복도시, **고양!**
600년 문화도시,

104만 고양시민의 작은 움직임이 민선6기 고양을 바꿉니다.